

코로나19 발생 지표 이상향 광주시, 대응 체계 강화 나서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시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점검하는 등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에서는 662명(해외 유입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규 사망 인원은(누계 568명)과 위중증 환자 발생은 없었다.

광주 지역 일자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일 180명, 21일 183명, 22일 145명, 23일 143명, 24일 125명, 25일 123명, 휴일인 26일 83명, 27일 129명, 28일 210명, 29일 194명, 30일 171명, 1일 164명, 2일 188명, 휴일인 3일 144명, 4일 280명, 5일 337명, 6일 313명, 7일 362명, 8일 350명, 9일 370명, 휴일인 10일 267명 등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날 4일부터는 300명 안팎의 수치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기 시작하더니 전날에는 평소 두 배에 이르는 600명대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주간 일 평균)도 지난달 29일 기준(23~29일) 9.2명, 30일 기준 9.6명, 1일 기준 9.9명, 2일 기준 10.2명, 3일 기준 10.9명, 4일 기준 11.4명, 5일 기준 12.8명, 6일 기준 14.0명, 7일 기준 15.2명, 8일 기준 17.1명, 9일 기준 18.9명, 10일 기준 20.6명, 11일 기준 21.9명 등 연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광주 지역 코로나19 감염 인원은 5813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11일 현재 신규 감염 인원은 3437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는 확진자 증가 요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하위변이(BA.5) 확산에 따른 재감염 사례 증가 ▲예방 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저하 등을 지목했다.

지난 11일 평소보다 두 배 확신 10만 명당 발생률도 연일 증가 원스톱 진료기관 156곳 지정

코로나19 관련 모든 지표가 이상향하자 광주시도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24개 의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지정했다. 이중 156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확산에 대비해 호남권역 병상을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석과 분만·소아·정신환자 등을 위해 특수 병상을 운영키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시설 내 격리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검사 지속 실시와 4차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인력 역량교육과 요양시설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내 5803곳의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수칙 준수 홍보·교육·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직장·다중이용시설·여름철 냉·난방기기 사용법 등 4대 분야별 생활 방역수칙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시청 블로그 등 각종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만일에 대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중저렴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보행자 없는데 서서히 우회전 하면 되죠?”

■ 새 도로교통법 첫날

‘보행자 보호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계도기간이라 별점이나 범칙금 부과 안해

“기본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가되 우회전 만큼은 서서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12일 오전 11시에 서울 중로구 이화사거리,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해화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려는 승용차 운전자들을 멈춰 세운 뒤 창문을 통해 안내서를 배부했다.

단속된 운전자 대부분은 법이 바뀐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주변을 살펴보고 앞차의 움직임을 그대로 우회전 하다 단속된 차량도 있었다. 교차로 단속 지점 건너편에서는 차량이 줄줄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계도 기간임을 안내받고 경찰관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한 달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으로 지정했는데, 이날 경찰 단속도 바뀐 법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일단 멈춰다가 가는 것이 안전하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를 멈춘 뒤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지나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정지선에 서면 되고, 없는 경우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에 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인근 서울대 사범대 부설초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 일시 정지 단속도 진행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자 서행하하던 택시기사 안모씨는 차량을 세운 뒤 단속 경찰관에게 “보행자가 아무도 없으면 서서히 가도 되냐”고 물었다.

경찰관은 “일단 섰다가 서서히 진행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점에 대해 운전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씨는 “이렇게 계도해주시 정확히 알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다만 도로 오른 편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왼편으로 정지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단속은 계도에 목적이 있는 만큼 경찰이 범칙금이나 별점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안성근 해화경찰서 교통과 경위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며 “앞으로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치는 만큼 이 점 잘 숙지하시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밭에서 분해되는 폐비닐’ 함평군 시범사업 호응

생분해성 멀칭필름 20ha 시범사업 토양 속 자연분해·노동력 절감 효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보급 중인 생분해성 멀칭필름 시범사업이 지역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촌지역 환경 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업용 폐비닐 발생량 감소를 위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20ha 규모의 생분해성 멀칭필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미생물, 효소, 박테리

아 등에 의해 물, 토양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환경 친화적인 농자재다.

수거와 제거 작업으로 노동력 소모가 컸던 기존 필름과 다르게 별도의 수거 작업 없이 경운이 가능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시범사업 적용 결과 10a 당 약 1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하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고품질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촌환경 보전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시범 실시한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진=함평군 제공)

물론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권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